현불 논단

가을의 문턱에서…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아침저녁 선선한 가을바람 불어
가야산 곳곳엔 단풍 물결 '넘실'
나무, 수풀 각자 색으로 물들어

법보전 '원각도량하처…' 주련은
깨달음이 먼곳 있지 않음을 알려
우리 행복도 평범한 일상에 있어

오늘의 가을, 나에게 유일한 하루
자신의 단풍으로 물든 오늘 살자

식지 않을 것만 같던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도 어느새 흘러가고 이제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고 있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과 밤낮의 시원한 공기가 가을의 문턱을 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요즘이다.

필자가 지내는 가야산에도 며칠 전부터 가을의 기운이 내려와 주위를 물들이고 있다. 홍류동 계곡 앞에는 붉은 단풍이 서서히 그 당당함을 드러내고, 장경판전 뒤의 단풍은 수줍은 듯 노오란 표정을 보인다. 성철 스님 부도탑 주변은 갈색의 가을 물결이 춤추고, 마애불 가는 길은 아직 초록의 싱그러움을 내뿜는다. 이처럼 이제 가을의 문턱을 넘으며 가야산도 붉고 노랗고 파란 단풍들이 각각의 자존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산과 공원을 찾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을 단풍을 즐기기 위해서다. 우리가 기대하는 가을의 모습은 각각의 나무와 수풀들이 저마다의 가을 옷을 보여주기에 그 아름다움이 극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가을이라고 해서 똑같은 빨간 단풍이 된다면 그 모습은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치게 될 것이다. 각자가 가진 모습을 그대로 담아 저마다의 색과 성품을 내비추기에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가을이라는 계절로 전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지금도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1년에 한 차례 가을의 옷을 입듯이 우리의 지금은 우리의 삶에서 단 한 차례만 오는 오늘이다. 오늘이 우리에게 가을이고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인 것이다. 해인사 법보전에는 '원각도량하처(圓覺道場何處) 현금생사즉시(現今生死卽時)'라는 주련이 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생사만이 있을 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글이다. 우리는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러나 막상 일상에서 행복을 느낀 순간을 떠올려보면 지극히 평범하다.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에 함께한 순간이 바로 행복한 순간이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언젠가 무엇인가에 의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둘러싼 공간과 순간을 바로 볼 때 그토록 찾던 행복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 행복의 주체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다. 동경과 부러움의 대상을 쫓아 그것을 따라한다고 그 삶이 자신에게 투영되는 것이 아니다. 가을의 단풍과 같이 저마다의 자존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색을 드러낼 때 비로소 스스로의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모든 일상이 공유되고 다른 이의 삶을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자신을 더욱 가꾸고 소중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차 자신들의 자존감을 잃고 남의 삶과 그 일상만을 쫓으려 하는 모습이 심해진다. 주위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남이 가진 것이라면 자신에게 필요 없어도 유행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사기도 한다. 그로 인해 만족과 행복을 느낀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아쉽게도 더욱 큰 불만족과 허전함만이 남게 된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도 정작 입을 옷이 없고 쓸 만한 것이 없다고 버릇처럼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색을 내뿜고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러한 자신을 남과 같이 만들려고 맞지도 않는 옷을 입히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가진 색깔이 무슨 색이고, 삶의 어디쯤에서 무엇을 향해 가는지 바르게 바라봐야 한다. 자존감이 없는 삶에서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주인공의 삶은 철저히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다운 삶을 추구해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속의 자신과 주위의 모든 것들이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찾는 행복이 눈앞에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오늘의 가을은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하루이다. 마음껏 가을을 즐기며 자신만의 단풍으로 물든 오늘을 살자.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초발심시 변성정각

한 환자가 법당에 내려와 하는 첫 마디가 "스님 저는 죄가 많은가봐요"였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2년 사이에 4번의 수술과 자궁암을 비롯하여 유방암, 갑상선암까지 3개의 암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눈물을 훔쳤다.

"정말 얼마나 많이 놀라셨을까요? 고생 많으셨네요"하고 위로하자 환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다. 처음엔 암이라는 병명을 듣고 사람에 대한 분노와 사회에 대한 비난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한다.

"암수술을 한 환자들의 5인실 병실의 밤풍경은 낮과는 사뭇 달라요." 자궁 적출하는 수술을 하고 자신의 슬픔과 고통에 매몰되어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은 흐느끼는 환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떤 환자는 온몸에 암이 전이되어 손을 댈 수도 없는 환자도 있었고, 어떤 환자는 암 3기라는 소리를 듣고 좌절에 빠진 환자도 있었다. 게다가 자신보다 젊은 사람도 있었다.

"그 순간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종교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고 한다. 병원에 있다 보니 유튜브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스님들의 말씀도 듣게 되었는데, 특히 108배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들으면서 온 몸의 세포가 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단다.



그림 · 최주현

"저는 불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특히 방사선치료를 받으러 들어가면 여기저기 가렵기도 하고 몸이 뒤틀리는데 그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에 집중하고 있으면 참을 수 있었다.

"유방암과 갑상선암까지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땐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다행히 0기에서 1기 사이라고 합니다. 암이 왜 저는 3개나 있는 걸까요?"

"저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1기에 발견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환자는 나와 눈을 마주친 후 의사도 같은 말을 했다고 되뇌이며 눈물을 훔쳤다. "뜻도 모르고 열심히 부른 염불 덕분에 가피를 입었네요"라고 내가 큰 소리로 말하자 환자는 '가피'가 뭐냐며 눈이 동그래졌다.

'초발심시 변성정각(初發心時 便成正覺)'이 떠올랐다. 뜻도 모르고 불렀지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른 그 간절함과 순수함이 문득 깨달음을 이루듯 기적을 가져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社 說

불교계, '직지'를 방치할건가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의 본질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와 관계없이 인쇄술 등 서지학적인 차원의 연구만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불교계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직지〉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오직 한 권만 남아있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이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기도 하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직지〉가 고려시대 백운화상이 선불교의 정수를 담아 저술한 불교서적이며 성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대중들은 많지 않다. 〈직지〉의 무궁무진한 가치 중에서도 어찌보면 핵심적일 수 있는 부분임에도 사실상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직지〉는 고려 시대 백운화상의 한평생 수행의 결실이 담긴 책이다. 이를 법맥으로 전승하기 위해 경전과 선어록 등에서 핵심을 추려 저술했고 제자들이 금속활자에 새겼다. 과거 7불과 서천의 조사, 중국 조사들의 선기가 담긴 어록들이 깨달음의 지침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자들조차 성보로서 〈직지〉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불교계가 〈직지〉에 너무 무심했던 것이 아닐지 돌아봐야 한다. 선불교의 언어는 대중들이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말 번역을 토대로 대중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외국의 관심도 주목해야 한다. 각국 언어로 번역해 더 많은 세계인들이 〈직지〉에 담긴 본질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노력이야말로 한국불교 세계화를 견인하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다.

봉선사 참선반 10주년에 부쳐

남양주 봉선사의 참선반 '선우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는 소식이다. 반가운 일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불교계의 수행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데다가, 과거와 달리 수행모임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0년 전만 해도 전국 곳곳의 사찰과 수행모임을 중심으로 참선수행이 가열차게 이어졌다. 재가불자들은 스님 못지 않은 수행력으로, 도반과 수행에 매진하며 깨달음을 향한 정진 열기가 그야말로 뜨거웠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둘 사라져 소식을 알 수 없는 곳이 적지 않다.

빠르게 바뀌는 재가불자들의 수행풍토의 영향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한 공간에 모여 서로를 독려하며 가부좌를 트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참선이란 순간순간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 항상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참선수행을 이어가길 바란다."

봉선사 선우회 창립을 주도했던 정수스님의 당부다. 이는 10년 전 선우회를 발족할 당시 세운 원력이자 본 뜻이기도 하다. 일상 속에서 마음을 직시하며 변화를 이끄는 수행을 지속하다보니, 어느새 선우회는 수행 뿐 아니라 사중 일에도 발벗고 나서며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실천력까지 갖췄다. 수행과 회향이 둘이 아님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10주년을 맞이한 봉선사 선우회는 흔들림 없는 수행원력으로 개개인의 깊이를 더해나가고 있는 동시에, 수행의 대중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선우회 회원들의 묵직한 발걸음이 더 많은 사찰들에게 전해져 한국불교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되길 발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5~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휘몰아치는 여러분의 정보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회원을 관리하는 모든 웹사이트의 보안서비스 개선
+ 시스템 보안관리
+ 서버운영 및 관리
+ 업무용 전산 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
+ PC 유지보수
IT PLUS + ONE ELSWIVER
http://www.elswiver.com http://www.itplusone.com
Venture for Tomorrow Korean Venture Entrepreneurship
IT PLUS + ONE 으로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IT PLUS + ONE 은 (주) 엘스위버의 정보보안 및 전산 통합관리 서비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ELSWIVER IT PLUS + ONE
©Copyright 2018 ELSWIVER co.Ltd. ALL RIGHT RESERVED